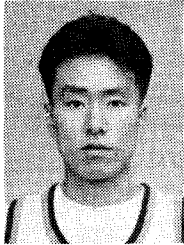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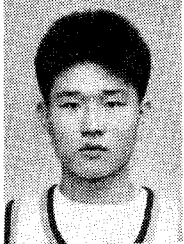


경희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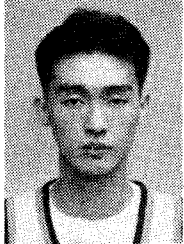
□ 우리학교 농구단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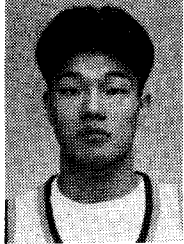
김성철
배 번: 13
위 치: 포워드
신 장: 196
학 년: 4
출신교: 삼일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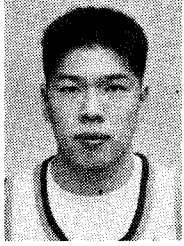
강혁
배 번: 11
위 치: 가드
신 장: 189
학 년: 4
출신교: 삼일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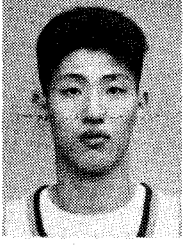
양은성
배 번: 5
위 치: 포워드
신 장: 186
학 년: 4
출신교: 광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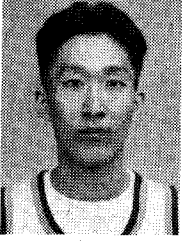
하상운
배 번: 6
위 치: 가드
신 장: 178
학 년: 4
출신교: 군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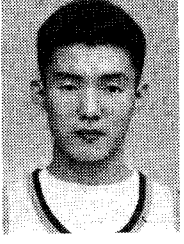
윤훈원
배 번: 32
위 치: 센터
신 장: 197
학 년: 3
출신교: 낙생교



송영환
배 번: 9
위 치: 가드
신 장: 192
학 년: 3
출신교: 낙생교



임성준
배 번: 8
위 치: 포워드
신 장: 190
학 년: 3
출신교: 경북교



신현웅
배 번: 7
위 치: 가드
신 장: 185
학 년: 2
출신교: 낙생교



농구에 신들린 코트 위의 벌떼들

"밥통같은 놈, 빨리 뛰어들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니 자리를 잘 지켜야 동료들에게도 힘이 될 것 아냐!", "공은 곧 생명이라 생각하고 악착같이 끌어안아!" 머리 위로는 계속 무시무시한 언어들, 웅단 폭격을 가한다. 머리와 머리가 번쩍이는 불꽃을 튀면서 부딪히고, '철썩'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등허리엔 손도장이 찍힌다. 땀으로 뒤범벅된 지친 몸을 이끌고 온 힘을 불사르는 시합을 끝내면 완전 탈진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즐겁다. 함께 뛰어주는 동료와 있고, 격렬한 몸싸움에서 싹트는 우정이 있고, 체육관을 가득 메우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농구단에 언제부터 '벌떼'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모른다. 수비력을 바탕으로

하는 독특한 전술이 마치 벌떼들이 일시에 몰려들었다가 순간적으로 흩어지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이런 별명이 붙은 듯하다. 그러나 은근과 끈기로 쌓아 온 훈련과 특유의 팀웍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타대학이 시험하길 꺼리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훈련과정은 생각보다 고되다. 그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아침운동, 오전엔 학과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의 몸을 푸는 훈련, 저녁 식사 후엔 스텝 및 개인기를 닦는 훈련을 한다.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주말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면 주말도

반납하고 훈련에 돌진해야 한다. 최부영감독은 "운동하다가 잠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라면서 어차피 대학농구도 아마추어이므로 끊임없는 자기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길을 걸어 갈 때도 드리블을 해야하며, 잠을 잘 때도 공을 껴안고 자라. 농구에 미쳐야만 한다"는 말은 농구부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는 우리 학교는 스카우트 비용이 전무하다. 우리학교에서는 이미 기량이 상당 부분 완성된 선수들이 아닌, 아직은 부족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선수들을 스카우트 한다.

그러곤 그들이 졸업할 무렵엔 프로에서도 충분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되게끔 만들려 한다.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타대학의 배 이상의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97~98 농구대잔치나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같은 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만을 그들의 전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훈련과 정이나 번번히 연세대학교에 밀려 우승자리를 놓쳐 온 안타까운 심정까지도 이해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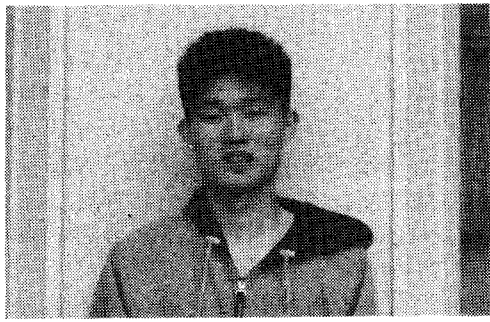
물론 우리는 선수가 아니므로 직접 훈련에 참가할 수도, 코트 위를 함께 뒹굴 수도 없다. 그러나 한 번쯤은 달려가 보자. 우리선수들이 뛰고 있는 경기장에 가서 목청껏 소리도 질러 보고 엉덩이를 실컷이며 춤도 춰 보자.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동문회자리를 여기서 만들어 봐도 괜찮을 듯하다.

오는 4월에 열리는 대학연맹전에선 우리의 자존심 벌떼농구단이 우승하기를 경희가 죽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최용섭 기자>

□ '98 농구부 주장 강혁(체육 4) 인터뷰

"눈빛만 봐도 마음 알아요"



운동량이 많다보니 개인시간을 갖기 힘들지 않은가?

물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힘들긴 하다. 그러나 야간훈련이 끝난 후엔 틈틈히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기도 한다. 주말엔 밖에 나갈 수 있으므로 시간만 맞다면 친구들과도

가끔 만난다. 단, 평일엔 시간이 없으므로 친구들이 군대를 갈 때 배웅하지 못하고, 휴가를 나와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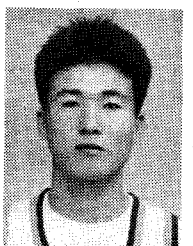
동료들과의 사이는 어떤가?

좋다. 항상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이다. 특히, 성질이 같은 경우엔 국민학교 때부터 동창이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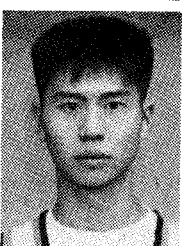
농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작년 12월, 3학년이었을 때 열린 제34회 전국 대학 농구연맹전에서 다들 이번에는 우승을 예상했는데 공동 4위를 했다. 말이 공동4위지 꼴찌나 다름없는 거다. 최하위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

<최용섭 기자>



김중길
배 번: 15
위 치: 포워드, 센터
신 장: 197
학 년: 2
출신교: 목포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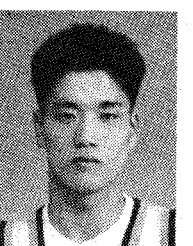
손인보
배 번: 22
위 치: 포워드
신 장: 198
학 년: 2
출신교: 광신상고



박성훈
배 번: 14
위 치: 포워드
신 장: 195
학 년: 2
출신교: 경북교



김진호
배 번: 4
위 치: 가드
신 장: 183
학 년: 1
출신교: 구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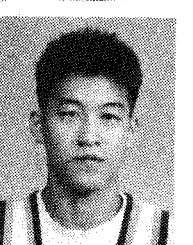
김세중
배 번: 33
위 치: 센터
신 장: 197
학 년: 1
출신교: 목포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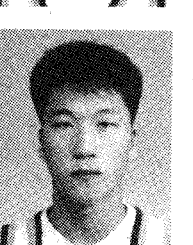
권민석
배 번: 23
위 치: 포워드
신 장: 195
학 년: 1
출신교: 낙생교



이혜옥
배 번: 12
위 치: 포워드
신 장: 195
학 년: 1
출신교: 단대부교



고대원
배 번: 10
위 치: 가드
신 장: 183
학 년: 1
출신교: 군산교



임정재
배 번: 31
위 치: 포워드
신 장: 190
학 년: 1
출신교: 군산교

여러분의 작은 정성, 경희사랑의 첫걸음입니다

■ ■ 경희발전기금 참여안내 ■ ■

대학교육이 바로 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조성된 경희발전기금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대 상: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기부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도서자료, 실험실습 기자재, 기타 자산 등

■일시 및 분할 납부: 일시 또는 월납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 (예: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 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서울은행 17301-2710-209

농협 031-01-396711

우체국 012336-0025556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외환은행 131-13-10336-6

평화은행 044-01-001-286

경희사랑기금통계금(서울은행) 17308-9505323

■발전기금 납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 현금을 출원하시고자 할 때에는 일시에 출원하거나, 금액을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우편환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가 가능합니다.

· 유가증권이나 기타 자산 출원은 개교50주년 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 유산상속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헌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 개교 50주년 기념 교사자료 수집안내 □ □

학교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경희창학 반세기의 자취를 모으고자, 경희학원 교사자료 모집운동을 펼칩니다.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경희공동체를 재확인하고 역동적인 시대에 새로운 경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집대상자료: 학교사(學校史) 전반에 관한 자료

· 사진, 간행물, 문서, 유품 등 경희학원 관련 물품

· 기념품, 집기, 베품, 뱃지, 교복, 팬던트 등

· 접수처: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중앙박물관

Tel: 961-0931/2, 961-0141 Fax: 961-0906, 0140

·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961-0931/2 Fax: 961-0906